

기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편의성과 위험성

김낙정 광양경찰서 경무계 경장



길거리를 걸을 때 부족 많이 보이는 개인용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가 버려지듯 세워져 있는 풍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PM은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중 최고속도 25Km미만 총 중량 30Kg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전기자전거 3종류입니다.

분명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 결제 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어디서나 결제하는 등 편리함 속에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퀴가 자동차 만큼 적은 만큼 핸들링이 어려워 균형을 한번 잃으면 넘어지기 쉽고 속도가 높은 만큼 다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PM) 이용할 때 이것만 지켜주세요

1. 안전모 보호장구 착용해주세요
2. 1대의 킥보드는 1명만 탑승해주세요 둘이 타면 무게로 인해 핸들링이 어렵습니다.
3.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우측차선을 이용하고 인도 주행은 금지
4. 주행 전 사용법을 숙지 후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를 취득하여야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 사실을 모르고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PM을 운전하게 한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PM이용시 헬멧을 쓰지 않거나 2명이 타거나 곡예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인도로 다니면 사고의 위험성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동의 편의성 안에 숨은 PM의 위험성까지 함께 알고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칼럼

인간이 갖추어야 할 德目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유교에서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으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오상(五常)을 말하고 있다.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 의(義)는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며,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고,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고, 신(信)은 광명지심(光明之心)으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 밝은 빛을 뽐으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이다.

“짜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짜가지”란 무슨 뜻일까? 인, 의, 예, 지, 4 가지가 없는 사람을 “사(四)가지 없는 놈”이라 했고, 이것이 변하여, “짜가지 없는 놈”이 되었다고 한다. 흔히 버릇없는 사람을 두고 “짜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데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의 인, 의, 예, 지, 4가지를 지키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했으며 예의 바른 민족임을 자랑했으며 양심에 따른 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었다. 특히 조선 시대의 유교 중심 사회에서는 인, 의, 예, 지, 4가지 덕목을 필수적으로 잘 지켜 왔다. 그러나 서양 문화인 기독교 문화가 전래하면서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위축되고 있다.

조선시대 수도인 서울에는 동서남북의 4 대문이 축성되었으며, 동대문은 인(仁)을 일컫는 문이라 해서 흥인지문(興仁之門)이고, 서대문은 의(義)를 두렵게 하고 닦는 문이라 해서 돈의문(敦義門)이고, 남대문은 예(禮)를 숭상하는 문이라 해서 숭례문(崇禮門)이며, 북문은 지(智)를 닦는 문이라는 뜻으로 홍지문(弘智門)이라 한다. 서울 중심에는 가운뎃을 뜻하는 신(信)을 넣어 보신각(普信閣)을 세웠다. 보신각에는 종을 설치해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을 쳐서 사방으로 종소리를 울렸다. 이처럼 한양 도성은 오상(五常)에 기초해 건립하였다.

7월에는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법치주의 국가로서 민주헌법을 만들어 법에 따라 정치하는 입헌 민주국가를 만들었다. 올해 7월 17일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 74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는 법보다 앞선 양심을 지키고 따르는 동방예의지국의 국민으로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오상의 인, 의, 예, 지, 신을 잘 지켜서 ‘짜가지 있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며,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대통령이 임기만 끝나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사법부의 법원이 신뢰받는 재판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오상을 지키지 않는 사람(짜가지 없는 사람)을 민선에 의해 일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상에 따른 ‘짜가지 있는 대통령’, ‘짜가지 있는 국회의원’, ‘짜가지 있는 법관’이 정치해야 한다. 정치권에 몸을 담은 공무원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오상의 덕목을 지키면서 욕심을 버리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창의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기고

추석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효도하자

김정용 장흥소방서 예방홍보팀장



311명 그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0명이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가 주택화재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주택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화재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에 내 집부터 안전하게 지켜 더이상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을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취침 시간대에 경보음을 통해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소방 시설이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하고 유용한 소화설비이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42,879건, 매년 화재 사망자

2022년 2월 장흥군 건선읍 소재의 빌라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해서 입주민이 무사히 탈출하여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고 화재로부터 나쁜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9월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택용 소방설비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준비하여 설치해드린다면, 평생의 효도와 함께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흥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